

2022 June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5월 동향

5월 연준 빅스텝 결정 후, 75bp배제 소식에 하락하던 국고채 금리는 미 CPI 시장 예상 상회로 상승 전환. 이어 금통위 물가안정 중시 인상을 반영하다 미 PCE 지표 하락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에 연동

미국과 한국의 물가지표 급등 속 5월 FOMC 50bp 인상이 국고채 금리 상승 견인했으나, 이어진 미 경기둔화 우려 등이 상당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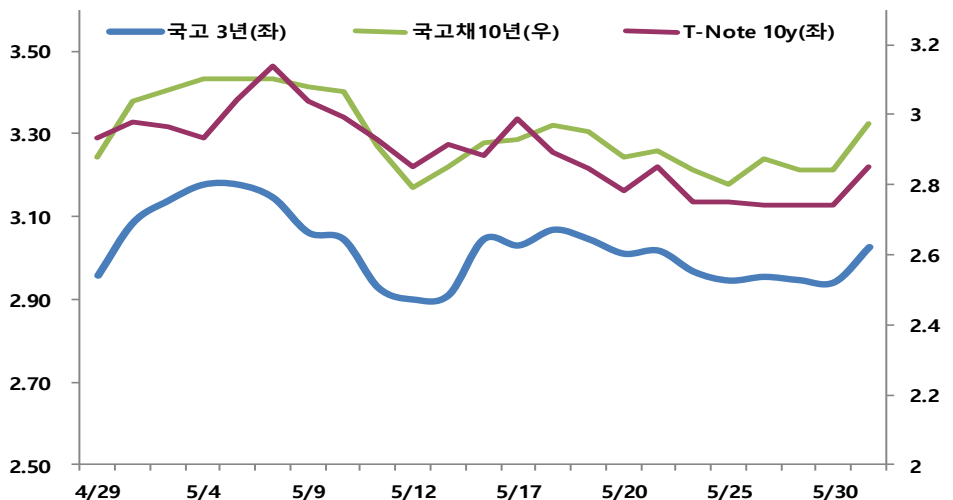
한은 국내 물가 고려 빅스텝 언급, 연준의 50bp 경로 유지 시사 등이 금리 상승세 견인한 반면, 빅스텝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은 금리 상단 제한에 영향

금통위 금리 연속 인상 결정, 미 대중 관세 철폐 소식 등에도 미 4월 PCE 물가의 정점 가능성 등에 따른 연준 통화정책 가능성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

- 5월 초, 미국 PCE지표 급등과 국내 4월 CPI 4.8%의 높은 상승세가 국고채시장 약세 견인. 이어 5월 FOMC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 심리 부각 등으로 하락 전환
 - 월 초, 미 4월 PCE 급등이 미 국채금리 상승을 야기하며 국고채금리도 이에 연동 상승 출발. 이어 국내 4월 CPI가 4.8%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전월 금통위 의사록의 매파 성향 등으로 상승 지속
 - 이어 5월 FOMC에서 75bp 인상안 배제 속 향후 방향성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는 인식에도 2-3차례 빅스텝이 미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하락 전환
- 중반, 한은의 빅스텝 언급, 미 소매판매 견조세 속 연준 의장 빅스텝 경로 유지와 인플레이션 중시 미 금리정책이 하반기 경기둔화를 유발할 것란 측면이 상충하며 점진적 금리 하락
 - 월 중반, 한은 총재의 국내 물가 상승 흐름에 대한 빅스텝 언급, 미국내 소매판매의 시장 예상 부합에 따른 연준 의장 기존 빅스텝 금리 경로 유지 시사 등이 국내외 금리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하지만, 인플레이션 중시 연준 금리정책이 하반기 미 경기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란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미 국채금리 하락 속 이에 연동한 국고채금리도 점진적 하향 전환
- 후반, 금통위 연속 금리 인상 속 국고채 금리 소폭 상승 압력 받았으나, 일부 연준 위원들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 시사와 미 PCE지표 하락에 따른 미 국채금리에 연동하며 하락 마감
 - 후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세 철폐 소식이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한 가운데 대내적 물가 안정을 중시한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에 소폭 상승에 영향
 - 하지만, 미 4월 근원PCE의 4%대 진입 속에 일부 연준 인사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 언급 등에 따라 미 국채금리가 하락 추세 전환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상당 부분 영향 전이되며 하락 추세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5월 평균
국고채(3년): 3.03%
T-Note(10년): 2.89%



자료: 하나은행, 단위 %

6월 전망

6월 미 CPI의 시장 예상 부합 가능성 등이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금리 상단 제한하겠지만, 금통위의 물가 증시에 따른 매파 성향에 대한 시장 기대 등이 소폭의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평균	1Q22	2Q22	3Q22	4Q22
국고채(3y, %)	2.23	3.0 ^(F)	3.2 ^(F)	3.1 ^(F)

미 행정부와 연준의 강한 인플레이 억제 방침 등이 금리 상승 동인으로 보이거나, 6월 CPI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 등은 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행정부 인플레이션 억제 최우선 방침 속에 연준의 6월 연속 빅스텝 인상 이슈가 한-미 금리 상승 견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6월 미 CPI가 전월 50bp 인상 영향에 다소 크게 하락할 가능성 상존 등이 금리 상단 제한 또는 하락 전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 바이든 행정부의 연준 의장 호출 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제어 방침에 따른 연준 6월 연속 빅스텝 인상 기조 등이 미 국채 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반면, 4월 미 PCE 지표가 4%대 감소 속 6월 CPI도 5월 빅스텝 후 시장 예상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연준이 2차례 빅스텝 이후 스탠스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금리 상단 제한 요인

한은 금통위의 2회 연속 금리 인상 이후 여전히 물가 안정이 통화정책의 중심이 되는 측면에 따른 매파 성향 지속 가능성이 금리 상승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국내 물가상승세가 고공행진 지속하며 한은이 연속 2회 금리 인상 단행 이후 여전히 물가안정 중시 기조의 매파 성향을 시사한 측면은 단기 구간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전월 한은 금통위는 전쟁과 중국 도시 봉쇄 등의 영향으로 국내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을 시사하며 25bp 금리 인상 단행
 - 특히, 물가 전망을 기존 3.1%에서 4.5%로 크게 상향하며 통화정책의 우선 순위로 물가 안정을 지목한 부분은 하반기 향후 2-3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이 단기적으로 선반영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 구간 국고채 금리 상승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6월 국고채(3Y) 금리는 2.95%~3.25% 예상

- 최근 중국 도시 봉쇄 정책 점진적 해제 등이 위험선호를 자극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긴축,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성장 전망 하향 등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와 추경 2차 시행 이후 국고채 수급 부담 완화 등이 금리 상단 제한하겠지만 금리 변동성은 다소 높은 수준 유지가 예상된다
 - 중국 도시 봉쇄 해제에 따른 영향이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를 제한할 전망이다. 하지만 글로벌 긴축과 전쟁 장기화 영향이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 등이 금리 상단 제한 요인
 - 여기에 2차 추경 이후 적자 국채에 대한 수급 부담 완화 등도 국채시장 강세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외적 인플레이션 영향 등이 당분간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리 변동성은 높은 수준 유지가 예상된다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6월 빅스텝 이후 추가 경로 유지 · 미 행정부와 연준의 강한 인플레이션 방어 의지 · 한은 물가안정과 하반기 추가 인상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긴축 기조 강화에 따른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 지속하는 가운데 일드커브의 장기구간 평탄화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5월 동향

연준 5월 빅스텝과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 반영 속에 1,290원대 진입 후, 유로 긴축 가능성, 중국 도시 봉쇄 해제, 4월 PCE물가 결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 대두 등으로 1,230원대까지 하락

5월 빅스텝 단행 이후로도 연준의 강한 긴축의지 재확인되는 가운데 달러인덱스는 104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강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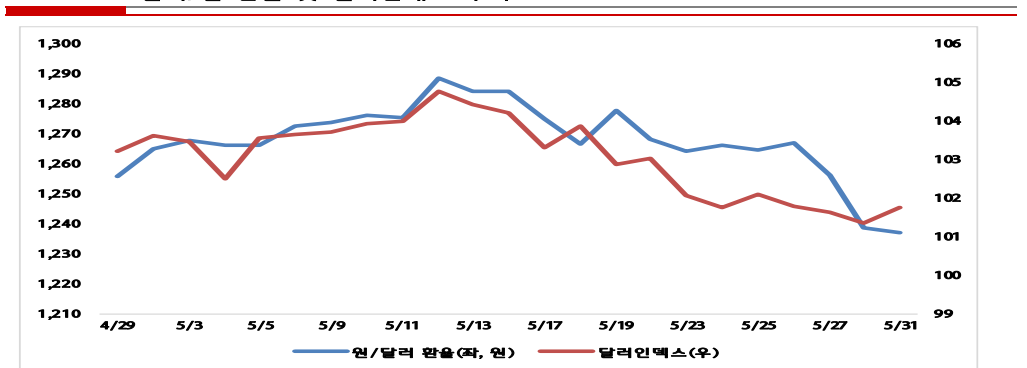
미국 5월 CPI가 시장 예상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 자극하는 형국 속에 중국의 경기 둔화 움직임을 반영한 위안화 약세 등이 원화의 약세 동조화에 영향

미국 1분기 성장을 확정치가 잠정치 대비 악화된 결과 보인 가운데 4월 PCE 지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감소세 보임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 반영 속 1,230원대 후반까지 하락

- 월초, 5월 FOMC에서 50bp 인상 후 75bp 인상에 대한 배제를 시사했음에도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가 104 수준까지 상승하며 1,270원대의 높은 환율 수준을 나타내는 형국
 - 월초, 5월 FOMC 결과가 기존 연준 스탠스를 반영하며 50bp 인상 이후, 달러인덱스가 104수준까지 튀어 오르며 환율은 1,270원대로 크게 상승하는 흐름 속에 출발
 - 한편으로는 연준 빅스텝에 대한 하반기 경기둔화 우려 부각이 안전자산 선호를 통한 달러 강세 견인하는 가운데 5월 미 CPI에 대한 경계감 등이 환율 변동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게 하는 형국 지속
- 월 중반, 미 CPI 높은 수준 지속과 연준 빅스텝 정책 실기에 대한 시장 우려 부각되며 장중 1,290원대 상향. 또한 중국 코로나 봉쇄에 따른 경기둔화를 제한하기 위한 위안화 약세 흐름도 원화의 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며 약세 흐름 견인
 - 중반, 5월 미 CPI가 8.3%로 전월 8.5%보다 0.2%p 낮았음에도 시장 예상 8.1%를 상회하며 연준의 인상 시기 실기에 따른 정책 신뢰 약화 등이 달러 강세 야기하며 12일 환율은 장중 1,291.5원까지 상승
 -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 도시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점중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유로존의 3월 산업생산 증가율의 큰 폭 감소 등에 따른 유로가치 하락 등도 간접적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친 형국
- 후반, 연준의 견고한 빅스텝 기조에도 1분기 미 성장세가 잠정치보다 악화된 가운데, ECB의 긴축 가능성 등에 의한 달러 약세 반영되며 1,250원대 하향. 이어 미 4월 근원PCE가 4%대로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 반영 등으로 1,230원대 후반 마감
 - 후반, 연준의 빅스텝 기조 공고함에도 1분기 미 성장률이 잠정치보다 역성장 폭이 0.1%p 커진 측면 반영되는 가운데 ECB 조기 긴축 전환 가능성 등이 달러 강세를 크게 제한하며 환율 1,250원대 하향
 - 이후, 중국의 도시봉쇄의 점차적 해제 속에 위안화 강세 영향과 미 4월 근원PCE의 4%대 후반 회귀에 따른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이 연준의 강성 매파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장 기대가 전반적인 달러 약세를 견인하며 1,230원대 후반에서 환율 마감

5월 달러/원 평균환율 : 1,268.3
5월말 달러/원 환율 : 1,237.2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하나은행

6월 전망

연준 5월 빅스텝 이후 인플레이션 감소 효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할 가능성 점중이 달러의 전반적 약세 견인할 전망이다, 연준 빅스텝 예정 경로 지속 예상은 환율 변동성을 다소 높일 전망

평균	1Q22	2Q22	3Q22	4Q22
달러/원 환율(원)	1,205.7	1,260 ^(F)	1,235 ^(F)	1,215 ^(F)

6월 CPI가 5월 빅스텝 영향을 반영하며 시장 예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전히 연준과 미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중시 스탠스가 환율 변동성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게 할 전망이다

- 미국 6월 CPI의 시장 예상 부합하는 감소 가능성이 위험선호 자극하겠지만, 여전히 연준 빅스텝 기조와 연준 일부 인사들의 지속된 매파 성향 등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연준의 5월 빅스텝 이후, 6월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하며 달러화의 강한 흐름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연준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간 인플레이션 회동 이후 연준의 빅스텝에 대한 기존 입장 고수 등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6월부터 시작된 양적 긴축의 달러 유동성 감소 영향 등은 인플레이션 기대 완화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중국 봉쇄 해제 속 위안화 강세와 유로존 긴축 기대 등이 원화의 간접적 강세 요인인 전망이나, 유로존의 긴축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늦춰질 것으로 예상

- 중국 도시 봉쇄의 점진적 해제 속 자본 유출 등에 방어를 위한 위안화 강세 흐름이 연준 긴축의 달러 강세를 제한하는 가운데 유로존 정책 정상화 이슈도 해당 시점에서 달러 약세에 다소 영향을 미치겠지만, 궁극적으로 정책 정상화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 최근 중국 도시 봉쇄의 점진적 해제 속 중간 중국내 외자 유출에 대한 방어 심리에 따른 위안화 강세 전환이 달러 약세를 일부 심화할 요인인 가운데 동조화 영향이 원화 약세 제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여기에 독일의 높은 물가 상승세 등에 따른 ECB의 긴축에 대한 기대도 달러 강세를 제한 할 요인이나, 전쟁 영향 등에 의한 유로 경기 재침체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로 강세의 달러 약세 영향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

6월 달러/원 환율
1,230 ~ 1,255원 예상

- 대외 전쟁 장기화, 중국 경기 우려에 따른 수출 경기 불확실성 상존과 이로 인한 국내 성장 모멘텀 약화 속 외자 유출 지속 가능성 등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 하지만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둔 한은 추가 금리인상 요인 등은 상기 약세 요인을 다소 제한할 것으로 예상
 - 대외적 전쟁 양상의 지속으로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이어지며 국내 수출 경기 개선세가 다소 꺾이는 측면이 대외 신인도에 약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
 -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세 속에 한은의 향후 추가 2-3차례 긴축에 대해 시장 기대가 높은 점은 원화의 대외적 약세 요인을 제한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과 미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드라이브 강화 · 글로벌 공급 체인망의 더딘 개선 속 국내 수출 경기 불확실성 다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6월 CPI의 5월 빅스텝 영향에 따른 시장 예상 부합 가능성 · 중국 도시 봉쇄 해제 점중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 우려의 제한적 방어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5월 달러/엔 평균환율 : 128.8
5월 엔/원 평균환율 : 984.8

6월 엔/원 예상범위 : 945-975

6월 미 CPI 감소세 가능성 등이 엔화 약세 제한할 요인이나 중국 도시 봉쇄 해제 속 경기둔화 방어 등이 위험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운데 BOI 완화정책 고수 의지 등에 따라 강세 흐름은 크게 제한될 전망

- (동향) 미 시간당 임금 상승 등 고용지표 개선 속 연준 FOMC 50bp 금리인상 후 추가 매파적 스탠스와 BOI 초 완화 지속 등으로 130엔 상향하며 출발. 중반, 미 CPI의 시장예상 상회에 따른 연준 빅스텝 지속 가능성과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미 금리 하락 영향의 상충 속 강보합 흐름 전환. 후반 들어, 연준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 우려와 4월 PCE 4%대 하락에 따른 영향이 달러 약세 견인했음에도 일본내 완화적 기조 고수 등이 엔 약세 흐름에 영향
- (엔/원 전망) 연준 정책에 대해 시장이 상당 부분 빅스텝 정보를 반영한 가운데 6월 미CPI 하락 전망 등이 엔화 강세 견인하겠지만, 대외적 중국 도시 봉쇄 점진적 해제 등에 따른 위험선호 요인과 BOI의 완화정책 고수 등이 소폭 엔 약세 흐름 견인할 전망. 엔/원 환율은 미 6월 CPI 시장 예상 부합 결과가 상대적 완화 강세 견인할 전망에 960원대를 소폭 하향할 전망
 - 6월 미 CPI 시장 예상 부합 등 그동안의 빅스텝 영향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시장 기대 등이 달러의 소폭 약세 전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 엔화 약세 제한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인플레 억제 정책에 따른 연준의 빅스텝에 대한 기존 정책 고수 가능성이 다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제 체질을 고려한 BOI의 완화정책 지속 의지 등은 엔화가 약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지속하게 할 전망

유로/원 전망

5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583
5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42.1

6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25~1,345

7월 ECB 긴축 가능성에 대한 시장 예상 속, 연준 빅스텝 정보의 시장 선반영 흐름에 따른 달러 약세 기조에 유로 강세 전망. 유로/원은 ECB 긴축 기대가 상대적 유로 강세 견인하며 소폭 상승 예상

- (동향) 5월 유로 제조업 업황 등의 시장 예상 상회에도 15개월래 최저 기록으로 유로 약세 출발. 이어 FOMC에서 향후 빅스텝 시사 지속으로 약세 흐름 이어지다 미 경기 둔화 부각 등으로 강세 전환. 중반, 미 4월 CPI 시장 예상 상회에 뉴욕 금융,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 증대가 달러 강세 견인 후, ECB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유로 약세를 제한. 후반 들어, 미 PCE지표가 50bp인상 후 4%대로 하락함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에 유로 강세 흐름 이어지며 마감
- (유로/원 전망) 연준에 대한 6월 빅스텝 정보 상당 부분 선반영 속 미 6월 CPI의 시장 예상 부합 기대 등이 전월대비 달러 약세 견인할 가운데, 전쟁 소상 상태에 따른 유로 경기 불확실성 제한적 영향과 유로존 인플레 상황 고려에 따른 ECB 7월 긴축 강화 가능성 등이 유로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강 속에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등이 유로 경제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나, 전쟁에 따른 일부 국가 인플레 상황으로 ECB 긴축 가능성이 불거지는 측면이 유로 강세 요인. 여기에 연준의 빅스텝 정보 선반영 영향도 유로 강세 지지할 가운데 유로/원 환율은 연준 이슈의 달러 약세 흐름 전망 속 시장의 ECB 긴축 기대 우위에 따른 상대적 유로 강세 예상 속 상승 전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2년 6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휴장(지방선거일)	2	3	4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지, 0안은 이전지			한 5월 수출/수입(18.4%/31.4%, YoY) 5월 무역수지(-\$2500M) 미 4월 건설지출(0.6%, MoM) 5월 ISM 제조업지수(54.5)/ISM 고용(50.9) 5월 ISM New Orders(53.5) 5월 ISM 구매물가지수(80.5) 중 5월 Caixin 제조업 PMI(46.0)	미 4월 제조업수주(0.7%) / 내구재주문(0.4%) 유 4월 PPI(2.3% MoM, 38.5% YoY) 4월 실업률(6.8%) U.S.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 Fed's Bullard Discusses the Economic and Policy Outlook	한 5월 CPI(0.7% MoM, 4.8% YoY) 미 5월 시간당 평균 임금(0.4% MoM, 5.2% YoY) 5월 경제활동참가율(62.2%) 5월 ISM 서비스지수(56.5) 유 4월 소매판매(0.3% MoM, 5.4% YoY) 독 4월 수출/수입(-3.3%/3.4%, MoM)	
5	6 휴장(현충일)	7 RBA 통화정책회의	8	9	10	11
	중 5월 Caixin 종합 PMI(37.2)/서비스 PMI(36.2) 5월 외환보유액(\$3119.72b)	한 5월 외환보유액(\$449.30b) 미 4월 무역수지(-\$93.0b) 유 6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22.6) 일 4월 노동자 현금수입(1.2%, YoY) 4월 실질 임금총액(-2.3%, YoY) 4월 가계 소비지출(-2.3%, YoY) 오 6월 RBA 기준금리(0.35%)	미 4월 소비자신용지수(\$30.000b) 4월 도매무역 판매(1.7%, MoM) 일 5월 도쿄 평균 사무실 공실률(6.38) 5월 파산(1.88% YoY) 독 4월 산업생산(-3.9% MoM, -3.5% YoY)	유 6월 ECB 단기수신금리(-0.5%) 6월 ECB 마진 대출 퍼실리티(0.25%) 6월 ECB 주요 재융자금(0.0%) 일 5월 통화량 M2(3.6%, YoY), M3(3.2%, YoY) 중 5월 신규 위안화 대출 CNY(645.4b) 5월 통화공급 M0(11.4%, YoY) 5월 통화공급 M1(5.1%, YoY) 5월 통화공급 M2(10.5%, YoY) 5월 수출(3.9% YoY) / 수입(0.0% YoY)	한 4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5월 CPI(0.7% MoM, 8.2% YoY) 5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2.6%, YoY) 5월 주간 평균 실질 소득(-3.4%, YoY)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58.4), 경기연황(63.3) 6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55.2), 1년 인플레이션 일 5월 PPI(1.2% MoM, 10.0% YoY) 중 5월 PPI(8.0% YoY) / CPI(2.1% YoY)	미 5월 월간 재정수지(\$308.2b) 일 5월 공작기계 수출
12	13	14	15 美 FOMC(~16)	16 美 FOMC, BOE 통화정책회의	17 BOJ 통화정책회의	18
중 5월 광공업생산(-2.9% MoM) 5월 소매판매(-11.1% YoY) 독 6월 ZEW 서베이 예상(-34.3)	미 5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93.2) 5월 PPI(0.4% MoM, 8.8% YoY) 유 6월 ZEW 서베이 예상(-29.5) 4월 산업생산(-1.8% MoM, -0.8% YoY) 일 4월 핵심기계 수출(7.1% MoM, 7.6% YoY) 4월 수출(12.5% YoY) / 수입(28.2% YoY) BOK Minutes of May Policy Meeting	한 5월 실업률(2.7%) 4월 통화공급 L(0.2%, MoM) 4월 통화공급 M2(-0.1%, MoM) 미 5월 소매판매(0.56 MoM) 4월 기업채고(2.0%) 5월 수출물가지수(0.6% MoM, 18.0% YoY) 5월 수입물가지수(0.0% MoM, 12.0% YoY) 일 5월 전국 백화점 판매(19.0% YoY) 5월 도쿄 백화점 판매(27.0% YoY)	한 5월 수출물가지수(1.1% MoM, 21.4% YoY) 5월 수입물가지수(-0.9% MoM, 35.0% YoY) 미 FOMC 금리 결정(1.25% ~ 1.50%) 5월 주택차관금(-0.2% MoM) 5월 건축허가(-3.2% MoM) 5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2.6) 유 5월 EU27 신규 차량등록(-20.6%) 4월 산업수주(-3.2% MoM, -9.5% YoY) 5월 PPI산업(2.3% MoM, 26.6% YoY) 영 6월 영란은행 기준금리(1.00%)	미 5월 광공업생산(1.1% MoM) 5월 설비가동률(79.0%) 5월 제조업(SIC) 생산(0.8%) 5월 섀넥스(-0.3% MoM) 유 5월 소비자기대지수(55.5) 4월 건설생산(0.0% MoM, 3.3% YoY) 일 6월 일본은행 정책금리전고(-0.10%) 6월 일본은행 10년 수익률 목표(0.0%)		
19	20	21	22	23	24	25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3.70%) 5년 위안화 대출금리(4.45%) 독 5월 PPI(2.8% MoM, 33.5% YoY)	미 5월 시카고 연방 국가월동 지수(0.47) 5월 기준주택매매(-2.4%, MoM) 유 5월 PPI(2.8% MoM, 33.5% YoY) 5월 실업률(6.5%) 5월 소비자기대지수(-21.1)			한 5월 PPI(9.2% YoY) 중 5월 SWIFT CNY 국제결제비중(2.14%) 독 6월 IFO 기업만경지수(93.0)	한 6월 수출 20일(24.1% YoY) 6월 수입 20일(37.8% YoY) 5월 소매판매(10.6% YoY) 미 5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황 5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 1년 인플레이션 5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5월 신규주택매매(-16.6% MoM) 일 5월 PPI 서비스(1.7% YoY) 5월 전국 CPI(2.5% YoY)	
26	27	28	29	30		
독 7월 GfK 소비자 기대지수	미 6월 앨리스 연준 제조업 활동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6월 MNI 시카고 PMI 6월 소매채고(0.7% MoM) 6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102.6) 미 1Q GDP 물가지수(8.1%) 1Q GDP 연안화 QoQ(-1.5%) 1Q 개인소비(3.1%) 유 6월 경기/산업/서비스/소비자 기대지수 5월 M3 통화공급(6.0%)	한 7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87) 7월 기업경기실사 비제조업(86) 미 6월 MNI 시카고 PMI 5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실질 개인소비 5월 PCE 디플레이터 유 6월 경기/산업/서비스/소비자 기대지수 중 6월 중앙/제조업/비제조업 PMI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